

여대생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

김 단 비¹⁾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최 바 올²⁾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본 연구는 여대생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지연행동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지연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지연행동의 매개효과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모두 거쳐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애착불안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지연행동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과 교육 장면에서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개입할 때 애착불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인지, 행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진로미결정 과정의 독특한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여대생, 애착불안,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

* 본 논문은 김단비(2019)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하였음.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E-mail : baole@koreatech.ac.kr)

I. 서론

인간의 삶은 일상의 사소한 결정부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결정까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향자, 1992). 즉, 대학생들은 자아탐색과 발견, 친밀감 발달, 진로탐색과 결정 등 다양한 발달적 도전에 스스로 직면하고 대응하며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안정적으로 다음 발달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점으로, 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문제와 진로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상담이 요구되고 있다(Kelly & Shin, 2009).

대학생의 진로 결정은 성별의 구분 없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여학생들은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상 등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 위치해있어 진로 결정에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이숙정, 유지현, 2009).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여대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대생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대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정홍원, 2002). 민무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여대생은

남자대학생보다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본인의 취업 기회가 남학생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남녀 대학생의 노동시장의 성별, 학력, 외모, 연령, 지역에 따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2008). 또한 이숙정(2012)은 취업률, 임금, 고용안정성에서 남녀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여대생이 취업과 진로에 대해 심리적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여대생의 심리적 특성이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직업결정은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에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Downing & Nauta, 2010). 국내 진로미결정에 대한 메타연구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은 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진, 천성문, 2001;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부모나 교사, 친구 등의 주요타인과 맺는 관계 경험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김수임, 강민철, 김연근, 2001) 이들과의 질 높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최옥현, 김봉환, 2007). 최근 부모, 친구 등 중요한 타인의 지지와 대학생의 진로미결정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도 이를 지지한다(Fabio, Palazzeschi,

Asulin-Peretz, & Gati,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이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불안 애착이 진로 선택 불안과 비관주의를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Braunstein-Bercovitz, Benjamin, Asor, & Lev, 2012). 애착의 형성과 발달은 생애 초기에 부모-자녀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후에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도 형성된다. 따라서 성인애착은 주 양육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현재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혹은 주요타인과의 애착 수준이나 패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Batholomew & Horowitz, 1991). 성인기 애착대상은 친구나 연인, 자녀 등으로 확대되고 애착의 패턴 또한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동기 주 양육자와의 애착패턴과는 다른 애착표상을 지니게 된다(서영석, 조화진, 2011).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기존 성인애착 측정도구들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새롭게 애착회피(attachment avoidance)와 애착불안(attachment anxiety) 두 차원을 개념화하였다. 애착회피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며, 애착불안은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남녀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들은 애착회피 성향이, 여성들은 애착불안의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eeney, Noller, & Hanrahan, 1994), 여자대학생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불안의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대학생은 애착회피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

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안상미, 방희정, 2013). Mikulincer와 Shaver(2005)는 여성들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관계에서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 것 같은 단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심리적 고통은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인지, 행동적 전략 구성의 강한 동기가 된다. 따라서 여성의 애착 불안은 다양한 장면에서 여성의 정서 뿐 아니라 인지와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애착과 진로결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가까운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으며(정애경 등, 2008), 부모애착 변인이 성인애착 변인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연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윤정, 2015). 그러나 부모애착과 성인애착의 차이를 연구한 김수임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요인을 통제할 경우 부모애착보다 성인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보다 성인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대생의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들의 성인애착 중 특히 불안애착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초기 완벽주의 연구자들은 완벽주의를 부정적 특성으로만 이해하였으나, 이후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Hewitt과 Flett(1991)은 다차원적 완벽주의 하

위요인을 체계화하고 척도(Hewitt & Fle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총 세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며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강한 동기를 수반하는 차원이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을 향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며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차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며,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타인을 실망시켜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즉,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을 경우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구연익(2010)은 성별에 따른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간의 정적상관이, 여자대학생은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정적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들은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으면 남들도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할수록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들은 완벽주의를 타인과의 관계 맥락에서 충족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고 있

다. 김민선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한 타인이 떠나는 것에 대한 높은 불안이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하기를 기대한다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이현정, 이승연, 2016; Rice & Lopez, 2004). 그러나 여성들의 애착불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지연행동이란 회피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이루는 행동으로(Klingsieck, 2013; Solomon & Rothblum, 1984), 지연행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초기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과 애착관계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Sommer(1990)는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에 대한 저항으로 지연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모나 권위에 대한 분노를 수동공격적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 특히 학업을 이루는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Ferrari와 Olivette(1994)는 부모의 통제가 지나칠 때 아동이 수동공격적 성격유형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특히 여성의 지연행동에 초점을 맞췄는데, 연구결과 아버지를 권위주의적이라고 인식한 여성들에게서 지연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남녀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여학생들만 아버지의 양육방식이 지연행동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Pychyl, Coplan, & Reid, 2002), 여성들이 중요한 인물과

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지연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Flett과 Blankstein(1993)의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지연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다(임성문, 2006에서 재인용). 이들의 연구 결과, 안정애착이 낮고 불안이나 회피애착이 높으면 지연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학생들은 학업지연행동이 낮은 반면, 부모와의 관계에 집착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학생들은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gbini, 2006).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애착불안과 지연행동의 관계가 확인되어(장효주, 박지희, 2016),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애착불안이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연행동은 정해진 기한 내에 주어진 과제를 마치고 성과를 내야하는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하여 문제를 유발한다(임성문, 2006). Beswick, Rothblum과 Mann(1988)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행동이 미결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지연행동이 자주 나타나면 학업수행이나 진로준비 행동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진로탐색행동과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조규판과 장은영(2010,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지연행동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지연행동 수준이 높으면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연행동은 진로미결정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Jamali, Araqi, & Kalantarkousheh, 2015).

이처럼 지연행동이 대학생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Flett, Blankstein, Hweitt과 Koledin(1992)은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모두 비합리적 신념과 관계된 것이며, 실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둘 간의 관계를 가정하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였는데,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일반적 지연행동과 학업지연행동 모두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과 이동귀(2010)는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집단분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조건적 수용이 높으면서 자기결정 동기가 낮은 집단이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높고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낮으면 학업지연행동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조건적 수용이 높으면 내적 동기가 낮아져 학업 등의 과업에서 실행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를 확인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진희, 양난미, 2017; 이수민, 양난미, 2011; 임성문, 강미정, 2006; 조이슬, 강영신, 2015; 한영숙, 2011).

또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과도 관계가 있었다. 사회부과적 완

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부적응적 인지나 정서를 거쳐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미소, 이성원, 양난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개념 명확성 또는 특성불안을 매개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선(2014)의 연구에서도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직접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적응유연성이나 우울을 거쳐거나 적응유연성과 우울을 모두 거쳐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에서 걱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이예진, 손현국, 오서진, 임유경과 이동귀(2010)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후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이 이 둘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애착불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대학생으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게시하여 응답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첫 페이지에 연구에 대한 소개,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참여자의 권리, 응답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였고 응답의 성실도 확인을 위해 설문문항 중간에 성실도 확인 문항(이 문항에는 2번으로 체크해주세요)을 한 문항 추가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IRB 심의를 거쳐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은 총 396명이었으며 이 중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남학생, 졸업생 등으로 응답한 63부를 제외하고 총 3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 333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모두 여학생(333명, 100%)이었으며, 학년에 따른 분포는 1학년 69명(20.7%), 2학년 77명(23.1%), 3학년 84명(25.2%), 4학년 82명(24.6%), 초과학기 21명(6.3%)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이 113명(33.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연과학계열 76명(22.8%), 의약학계열 37명(11.1%), 공학계열 32명(9.6%), 사범계열 24명(7.2%), 예체능계열 20명(6.0%), 상경계열 17명(5.1%), 기타 14명(4.2%) 순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나이는 만 20.99세였으며 표준편차는 1.85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애착불안

애착불안이란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으로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애착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한국판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측정하는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7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회피, 애착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에 해당하는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실시하여 18개의 문항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묶기란 하나의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가 다수일 때 추정해야 할 미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측변수를 줄여 추정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배병렬, 2014; Bandalos & Finney, 2001;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항목 묶기를 하기 전 항목의 단일차원을 확인해야 하며 차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탐색적 요인분석

으로 사각 회전을 통해 단일차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회전된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임의할당법, 항목 대 개념 균형법, 내적일관성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항목 대 개념 균형법(item-to-construct balance)을 이용하여 3개의 하위요인에 나누어 할당하였다. 항목 대 개념 균형법은 요인적재치가 제일 큰 항목을 ‘하위요인1’에서 ‘하위요인3’까지 순차적으로 할당하고 그 다음으로 큰 항목은 ‘하위요인3’에서 ‘하위요인1’까지 역순으로 할당하여 각 하위요인별로 요인적재치의 합이 비슷하도록 할당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14). 각 하위요인은 차례대로 애착불안1, 애착불안2, 애착불안3으로 명명하였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애착불안 차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4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83, .82, .84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진로미결정이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또는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Tokar, Withrow, Hall, & Moradi, 2003).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해 Tak과 Lee(2003)가 개발한 한국직업미결정검사(Korea Career Indecision Inventory, K-CII)를 사용하였다. K-CII는 직업정보 부족(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 외적 장애(4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으로 Likert 5점(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형식의

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k과 Lee(2003)의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직업정보 부족 .85, 자기명확성 부족 .89, 우유부단한 성격 .78, 필요성인식 부족 .74, 외적장애 .6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직업정보 부족 .85, 자기명확성 부족 .88, 우유부단한 성격 .82, 필요성 인식 부족 .78, 외적 장애 .75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란 부모나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며,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타인을 실망시켜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의미한다(Hewitt & Flett, 1991).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Hewitt과 Flett(1991)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and Fle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FMPs)를 한기연(1993)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세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 15문항씩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15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한기연(1993)의 연구

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단일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묶기를 실행하였고 총 15개 문항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고 각각 완벽주의1, 완벽주의2, 완벽주의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전체 신뢰도는 .85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62, .66, .66으로 나타났다.

지연행동

지연행동이란 회피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미루는 행동을 의미한다(Klingsieck, 2013; Solomon & Rothblum, 1984). 지연행동을 측정하는 검사는 Aitken(1982)에 의해 개발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 API)를 박재우(199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척도에서는 예, 아니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Likert 5점(1 = '전혀 아니다', 5 =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Aitken(1982)의 척도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포함된 문항들이 학업이나 시험 등의 단어에 국한되지 않고 일, 계획 등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대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연행동을 묻고 있어(박재우, 권정혜, 1998), 본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사용하였다(예: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시작하기를 미룬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itken(1982)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으며 김민선 등(2009)의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지연행동 척도 또한 단일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항 묶기를 실행하였다. 총 19개 문항을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고 각각 지연행동1, 지연행동2, 지연행동3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85였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63, .69, .6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에 결측 데이터나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 간 일관성 및 관계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Anderson과 Gerbing (1988)이 제안한 2단계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 method)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Kline, 2005). 잠재 변인 간 상관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변인과 지연행동 변인과의 상관을 제외하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잠재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8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문수백, 2009; Lei & Wu, 2007).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 검증 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1, N = 333) = 164.061, p < .001$; GFI = .936; TLI = .953; CFI = .963; RMSEA = .063(90% CI = .050-.075). 자세한 수치는 그림 1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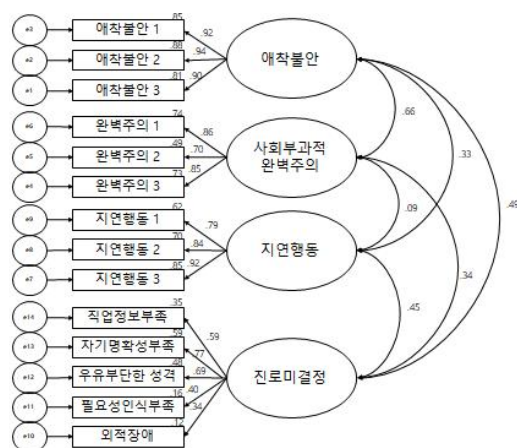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분석 결과

표 1. 측정변인 간의 상관, 평균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33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86**	1																
3	.83**	.85**	1															
4	.95**	.95**	.94**	1														
5	.52**	.55**	.49**	.55**	1													
6	.42**	.40**	.35**	.41**	.61**	1												
7	.51**	.56**	.49**	.55**	.73**	.60**	1											
8	.55**	.58**	.51**	.58**	.89**	.84**	.89**	1										
9	.21**	.24**	.24**	.24**	.02	-.09	.06	-.00	1									
10	.26**	.31**	.32**	.31**	.15**	.03	.11*	.11*	.65**	1								
11	.24**	.26**	.29**	.28**	.09	-.02	.07	.05	.73**	.78**	1							
12	.26**	.30**	.31**	.31**	.10	-.03	.09	.06	.88**	.90**	.93**	1						
13	.19**	.18**	.19**	.20**	.10	.06	.09	.10	.19**	.20**	.22**	.23**	1					
14	.31**	.29**	.29**	.31**	.19**	.11*	.18**	.19**	.25**	.26**	.31**	.31**	.52**	1				
15	.45**	.43**	.44**	.46**	.29**	.22**	.27**	.30**	.30**	.30**	.30**	.33**	.32**	.54**	1			
16	.15**	.14*	.12*	.14**	.11	.01	.02	.05	.21**	.17**	.18**	.21**	.31**	.29**	.23**	1		
17	.23**	.21**	.20**	.23**	.33**	.40**	.31**	.39**	.12*	.15**	.12*	.14**	.24**	.20**	.21**	.24**	1	
18	.40**	.38**	.38**	.41**	.30**	.24**	.26**	.31**	.32**	.33**	.35**	.37**	.72**	.80**	.72**	.58**	.53**	1
M	3.91	3.46	3.54	3.63	2.75	3.03	2.79	2.86	2.75	2.42	2.74	2.64	2.92	2.76	2.95	1.75	1.89	2.45
SD	1.16	1.21	1.20	1.13	.66	.66	.69	.58	.63	.66	.70	.60	.91	1.07	.97	.74	.82	.61
왜도	-.15	.09	.10	-.02	.23	.35	.23	.32	-.28	.36	.03	-.00	-.11	.17	-.09	1.02	1.02	-.04
첨도	-.45	-.58	-.40	-.56	.40	.19	-.13	.40	.07	-.05	.03	.15	-.75	-.88	-.69	.51	.92	-.51

주. 1. 애착불안1 2.애착불안2 3.애착불안3 4.애착불안총합 5.완벽주의1 6.완벽주의2 7.완벽주의3 8.완벽주의총합 9.지연행
동1 10.지연행동2 11.지연행동3 12.지연행동총합 13.직업정보부족 14.진로명확성부족 15.우유부단한성격 16.필요성인식부
족 17.외적장애 18.진로미결정총합

* $p < .05$. ** $p < .01$

하였다.

3. 구조모형 검증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

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이 매개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 자료에 양호한 수준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1, N = 333) = 164.061$, $p <$
.001; GFI = .936; TLI = .953; CFI = .963;

RMSEA = .063(90% CI = .050-.075). 구조모형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변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각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lambda = .66, p < .001$)와 지연행동($\lambda = .47, p < .001$), 진로미결정($\lambda = .30,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lambda = -.21, p < .05$),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연행동은 진로미결정($\lambda = .34, p < .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4. 매개효과 검증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이란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표본추출을 통해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우종필, 2017)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표본수 2,000개,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09($p < .05$)의 간접효과를 갖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또한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경로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애착불안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 애착불안 →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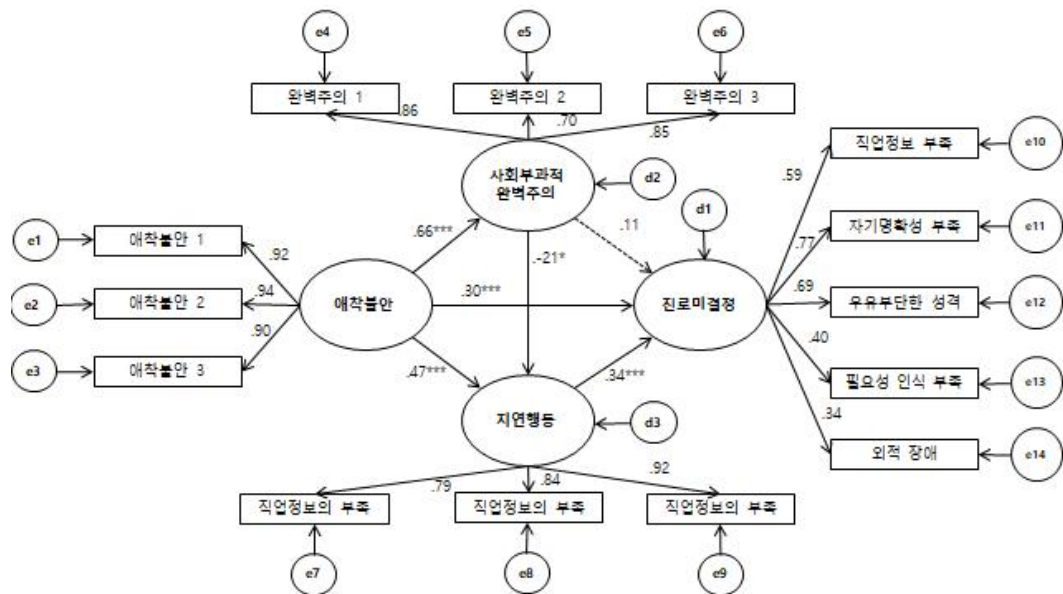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분석 결과

* $p < .05$. *** $p < .001$
경로계수는 표준화 값임

표 2. 구조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경로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	
				Lower	Upper
애착불안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진로미결정	.035	.000	.035	-.017	.098
애착불안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	.075	.000	.075***	.041	.134
애착불안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	-.079	.000	-.079*	-.155	-.002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	-.023	.000	-.023*	-.056	-.003
애착불안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	-.023	.000	-.023*	-.056	-.003
애착불안 → 진로미결정	.231	.143	.088*	.024	.163

*** $p < .001$. * $p < .05$

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 애착불안 →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의 간접효과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 지연행동 → 진로미결정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대학생의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강원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33명을 표집으로 선정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여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은희(2011)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한 애착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대생이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지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여 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을 때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애착불안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애착불안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정적인 상관이라는 선행연구(김민선, 서영석, 2010; 김종운, 김미정, 2015; 이현정, 이승연, 2016; Rice & Lopez,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대

인관계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끊임없이 정서적 반응을 하는 애착불안의 특성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평가하며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타인을 실망시켜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Ainsworth(1989)는 애착은 개인이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신념과 기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애착불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간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여대생들은 항상 중요한 타인이 떠날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관계에 집착해야 한다고 믿고, 이러한 믿음이 중요한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부과했다고 믿는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회부과적인 완벽주의 신념을 형성,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애착불안에서 지연행동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는 애착과 지연행동의 관계를 가정한 Missildine(1963), MacIntyre(1964) 등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양육방식, 애착과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장효주, 박지희(2016), Ferrari와 Olivette(1994), Pychyl, Coplan과 Reid(2002), Flett과 Blankstein(199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높은 불안이 분노 등 부정적 정서를 높여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루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진로미결정

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연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타인이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부여하였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믿음이 직접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런 믿음이 실행을 미루게 하고, 이것이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개념 명확성 또는 특성불안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김미소와 양난미(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인지, 정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연행동에서 진로미결정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의 지연행동이 진로미결정과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Jamali, Araqi와 Kalantarkousheh(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지연행동이 미결정을 야기한다는 Beswick, Rothblum과 Mann(198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들은 지연행동이 우울이나 불안(Ferrari, Johnson, & McCown, 1995), 부정적 자기평가와 자기비난(김광숙, 김정희, 2007; Ferrari & Ware, 1992), 초기 부적응적 도식(정미경, 이지연, 장진이, 2014) 등과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적응적 정서와 인지는 신체, 학업,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임성문, 2006; Steel, 2007),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진로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서 지연행동

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타인이 부여한 높은 기준에 맞춰야만 한다는 신념이 높은 여대생들은 미루는 행동을 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이수민, 양난미, 2011; 임성문, 강미정, 2006; 조이슬, 강영신, 2015; 한영숙, 2011).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와 상이한 원인으로 대상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경우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완벽주의적 신념이 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과 지연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성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여 여성들에게 관계 맥락이 수행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Pychyl et al., 2002). 또한 이에진 등(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걱정을 거쳐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여학생은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는 타인이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했다고 믿는 것과 수행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연행동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며,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이중매개역할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애착불안은 지연행동을 거치거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차례로 영향을 미쳐 진로미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대생의 애착불안이 높을 경우 지연행동이 나타나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애착불안이 높은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문제를 상담할 때 지연행동이 나타나는지 살피고, 지연행동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애착불안이 높으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지연행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지연행동은 진로미결정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불안이 높더라도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으면 지연행동을 덜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연행동을 낮추기 위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등 다양한 부적응적 정서와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ewitt & Flett, 1991). 즉, 애착불안이 높은 여대생이 타인이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믿는 높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과업을 미루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는 등 과업은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애착불안이 높고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높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정서적 고통을 세심히 살피고, 관계와 기준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통찰하고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인지, 행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여성의 애착불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지연행동과 진로미결정을 하나의 구조적 모형으로 설정하여 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애착불안은 직접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연행동을 거치거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거쳐 간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이나 지도 장면에서 여대생이 진로미결정을 호소하는 경우 애착불안을 확인하고, 애착불안이 높을 경우 지연행동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행동은 구체적 계획 세우기, 최종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나눠 여러 단계로 구성하고 정적 강화 제공하기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충족해야 한다는 신념이 지연행동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다양한 부정적 정서, 행동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합리적 수준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충족하려는 욕구를 적절히 유지한다면 지연행동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의 관계를 탐색한 것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와의 관계, 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문헌과 교육 및 상담 현장에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부모애착보다 성인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생애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은 개입이 매우 어려운 반면, 성인애착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 더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은 발달단계 상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요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졸업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미결정 간 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이 발달과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제공하여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진로미결정 과정의 독특한 특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여성에게서 애착불안이 더 높게 나타나고, 애착불안이 여성의 인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애착불안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을 거쳐 진로미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적 관계가 나타났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 간에 정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관계 맥락이 여성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다양한 장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계를 중요시 하는 개인의 경우 타인이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믿음

이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애착 불안의 수준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이 원인인지,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제삼의 원인이 있는지, 변인 간 서로 상호작용하는지 등은 알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외에 다른 요인의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와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변인이 선행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지연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변인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은 자기개념 명확성, 특성불안, 적응유연성, 우울 등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매개나 조절변인을 확인하는 것은 진로미결정의 이해와 실제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향자 (1992). 진로의사결정모형의 문헌적 고찰. *인간이해*, 13, 3-19.
- 구연익 (2010). 남녀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 표현양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33-947.
- 김미소,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2(1), 1-23.
- 김미소, 이성원,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96-296.
- 김민선 (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7(4), 145-166.
-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 김민선, 최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자기결정성에 따른 하위집단과 학업지연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39-56.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임, 강민철, 김영근 (2011).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 부모애착,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조절된 매개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5), 1703-1718.
-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

- 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동서정신과학**, 4(1), 147-162.
- 김종운, 김미정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향유신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5(3), 541-562.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민무숙 (2011). 여성커리어개발과 대학 취업지원의 과제. **취업진로연구**, 1(1), 27-51.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재우, 권정혜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8(1), 105-119.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서영석, 조화진 (2011).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71-490.
-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 1-243.
- 안상미, 방희정 (2013). 남녀 대학생의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부·모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69-190.
- 우종필 (2017).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대출판사.
- 유진희, 양난미 (2017).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8), 312-312.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숙정 (2012). 여대생의 심리적 욕구가 진로스트레스를 매개로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여성연구**, 51(1), 103-130.
- 이숙정, 유지현 (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 이예진, 손현국, 오서진, 임유경, 이동귀 (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 간의 성차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45-65.
- 이은희 (2011).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 및 자아정체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401-425.
- 이현정, 이승연 (2016). 여대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83-99.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 임성문, 강미정 (2006). 완벽주의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사회과학연구**, 23(1), 119-136.

- 장효주, 박지희 (2016). 미루행동을 매개로 한 성인 애착과 주관적 안녕감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8), 381-381.
- 정미경, 이지연, 장진이 (2014). 중학생의 초기 부적응 도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자기구설 만듦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1), 259-280.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상담: 진로 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홍원 (2002). 여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관, 장은영 (2010).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우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2(1), 17-33.
- 조규관, 장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지연행동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의 차이. *한국진로교육학회*, 25(2), 1-20.
- 조이슬, 강영신 (2015).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6(4), 359-375.
- 최옥현, 김봉환 (2007).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3), 1063-1084.
- 최윤정 (2015). 대학생 진로 문제의 개념화를 위한 진로 미결정의 잠재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6(3), 175-193.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영숙 (201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4), 277-299.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itken, M.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humacker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 269-298).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2), 207-217.
- Braunstein-Bercovitz, H., Benjamin, B. A., Asor, S., & Lev, M. (2012). Insecure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pessimism.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2), 236-24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Downing, H. M., & Nauta, M. M. (2010). Separation-individuation, exploration, and identity diffusion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3), 207-227.
- Fabio, A. D., Palazzeschi, L., Asulin-Perez, L., & Gati, I. (2013). Career indecision versus indecisiveness: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42-56.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128-152). New York: Guilford Press.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4). Parental authority and the development of female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87-100.
- Ferrari, J. R., & Ware, C. B. (1992).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3), 495-502.
- Flett, G. L., & Blankstein, K. R. (1993). Unpublished data. Yale University.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 159).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 85-94.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G.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Hagbin, M. (2006). *Attachment styles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relation to procrastination: A psychodynamic perspective on the breakdown in volitional 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rleton University, Canada.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Jamali, Y., Araqi, V., & Kalantarkousheh, S. M. (2015). Function of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procrastination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llameh Tabataba'i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Online Journal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4(1), 57-65.
- Kelly, K. R., & Shin, Y. J. (2009). Relation of

- neuroticism and negative career thoughts and feelings to lack of inform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201-213.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 Klingsieck, K. B. (2013). Procrastination: When good things don't come to those who wait. *European Psychologist*, 18(1), 24-34.
- Lei, P. W., & Wu, Q. (2007). Introduction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26(3), 33-43.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cIntyre, P. (1964). Dynamics and treatment of passive aggressive underachiever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8(1), 95-108.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security, compassion, and altru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1), 34-38.
- Missildine, W. H. (1963).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New York: Simon & Schuster.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2), 271-285.
- Rice, K. G., & Lopez, F. G.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dult attachment, and self 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2), 118-128.
- Solomon, L. J., & Rothblum, M.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ommer, W. G. (1990). Procrastination and cramming: How adept students ace the system.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9(1), 5-10.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 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Tak, J., & Lee, K. H. (2003). Development of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328-345.
- Tokar, D. M., Withrow, J. R., Hall, R. J., & Moradi, B.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3-19.

1 차원고접수 : 2019. 10. 09.

수정원고접수 : 2019. 12. 05.

최종게재결정 : 2019. 12. 17.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Kim, Danbi¹⁾

Choi, Baole²⁾

¹⁾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²⁾Dept. of Liberal Art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career indecis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Data from 333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responded on the online survey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rect effects of attachment anxiety on career indecisio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and the direct effects of procrastination on career indecision were positive to a significant degree, whereas the direct effect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procrastination were negative to a significant degree.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crastination and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were significant. Thir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procrastination while procrastin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tachment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should be considered during interventions with female university students over career indecision issues.

Keywords: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tachment anxiety, career indecisio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procrastination